

“다종교사회 승가교육  
자연과학에 관심”  
박선영교수 주장



한국 승가교육은 일정수준 이상의 신학(神學)에 대한 교육과 자연과학 분야의 교육을 시도하려는 등의 풍토 쇠신이 필요하다.”

“다종교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을 주제로 27일 동국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 연차 학술대회에서 불교분과 발제에 나선 박선영 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를 통해 현행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종단의 승가교육에 대한 다양한 계도와 승가공동체의 쇄신 및 유인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조계종단의 교육법은 교육방법과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며 “경직되고 양극화된 현행 승가교육제도의 본격적인 전환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세계 종교학자 원융회통사상에 경탄

5천여명

## 미국종교학회 원효학 연구분과 발표회

원효스님의 화쟁(和諍)·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이 세계 종교학자 5천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새롭고 충격적인 사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또 분별과 혼돈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사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신(神)에 대한 유일사상에서 ‘신의 해체’를 과제로 안고 있는 미국 신학자들은 원융회통사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원효사상에 대한 연구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반응은 지난 11월 21~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 종교 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정기학술회의에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서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규)는 한국불교로는 처음으로 ‘원효학 연구분과 발표회’를 열고, 발표기간 중 ‘국제원효학의 밤’과 ‘원효전서 영역자 워크숍’도 개최했다.

원효사상을 집중 조명한 22일 첫날 발표회에서 ‘성불(成佛)에 대한 원효의 관점-실재인가 가능성인가?’를 통해 조은수씨(美 미시건대)는 “원효스님은 모든 지각있는 존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성불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며 “단지 우리의 불결한 마음의 상태가 반(反)성불일 뿐이므로 성불은 실천의 과정에서 실현되고 불결함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고 강조했다. 해수스님(동국대)은 ‘원효의 화엄사상’에서 “원효스님의 화쟁철학의 기초는 화엄사상이며, 원효의 일심(一心)에 대한 그의 관점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면서 “원효스님은 일심을 곧 ‘자각’이라고 보았으며, 투쟁과 모순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서 화엄사상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혜도경중요’에 나타난 원효의 반야바라밀다 해석’에서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원효는 경전을 영원한 법(法), 깨달음을 위한 모든 단계의 기본적 길로 규정하고 모든



11월 21~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종교학회 정기학술회의에서 ‘원효학연구발표회’를 갖고 토론을 벌이고있는 학자들.

## 화쟁철학의 기초는 화엄사상 이성주의로 원효사상 해석 모순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봤으나 법(法)은 그 자체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효의 관점-실재인가 가능성인가?’를 통해 조은수씨(美 미시건대)는 “원효스님은 모든 지각있는 존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성불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며 “단지 우리의 불결한 마음의 상태가 반(反)성불일 뿐이므로 성불은 실천의 과정에서 실현되고 불결함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러 원효전서 영역자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 24일 발표회에서 조성택씨(美 뉴욕주립대)는 ‘열반경중요’ : ‘대반열반경’에 대한 원효의 주석’을 통해 ‘열반경중요’는 불교경전 주석에 관한 독특한 형식과 원효의 포용적이며 다양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며 “원효는 주석서를 통해 다양한 논쟁들을 조화하고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美 버클리대)는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밀라레파

### 티벳 비폭력 독립기금 모금

밀라레파 기금(Milarepa Fund)은 불교의 자비정신과 비폭력주의 정신을 진흥시키기 위해 티벳에 본부를 둔 국제적 비영리불교 운동기구이다. 밀라레파 기금은 티벳인들의 비폭력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또 변화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매개체로 상징되고 있는 전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이라는 명칭은 11세기 티벳의 성인(聖人)으로서 시인이자 음악가, 명상 수행인인 제트스 밀라레파(Jetsun Milarepa)라는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밀라레파는 공법한 티벳인으로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며, 변화를 위한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젊은 시절 삼촌으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받으면서 사된 마을을 배우거나 살인으로 자신의 삼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그의 악행이 스스로에게는 크나큰 업(業)이 되었다. 그 뒤 그는 당시 티벳 불교계의 큰 스님인 마르파(Marpa)를 찾아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파 스님은 자신이 터득한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수년 동안이나 밀라레파의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시험하였다. 그 뒤 밀라레파는 스스로 깨달음을 터득한 후 보살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을 서원하였다.

티벳에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들의 영웅’이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의식의 존재까지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열반의 경지를 뛰어 넘어야만 진정한 보살의 경지에 도달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 밀라레파는 태백인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과거사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여건과 시련속에서도 깨달음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사례로써 지금도 티벳인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티벳인들은 또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밀라레파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은 ‘비폭력 운동’과 ‘오락’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밀라레파 기금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의(不義)를 종식시키는 각종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벳의 자유와 진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우리 티벳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면서 티벳의 평화적인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밀라레파 기금의 비폭력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의 비폭력 관련 교육 프로젝트로는 티벳인을 위한 자유 음악회 개최, 스거리 연설, 스승의 날 기념 행사, 티벳 관련 기록 영화 제작, 스승의 날 기념 행사 등이 있다. 밀라레파 기금에서는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고양시키고 또 스스로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http://www.milarepa.org/milarepa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nia.com)

## “불교학-인도철학-선학 균형발전”

### 이지수교수 ‘인도철학 발표회’서 주장

“한국불교 교육의 큰 가치를 이루는 불교학·인도철학·선학은 서로 불가분적인 상의상자(相依相資)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균형을 이루며 보조를 맞출 때 한국불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일 외국어대 시청각교육실에서 열린 인도철학학회(회장 정태혁) 제9회 인도철학 연구발표회에서 이지수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삼량(三量)·삼해(三慧)와 교(教)·철(哲)·선(禪) 삼학의 방법론적 정초(定礎)를 통해 “교·철·선 삼학(三學)이 서로 소집단적 이기주의와 독선으로 유아적(唯我的) 학문연구를 고집한다면 전체의 조화와 화합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불교의 학문적 구조마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하나가 배제되거나 위축된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그만큼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과 증(證)에 대한 수행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라마누자의 요가사상-박피요가와 배편잘리 요가의 관념성을 중심으로’에서 주명철씨(동국대 강사)는 “해탈에 이르는 최상의 길로 나타난 우파니샤드의 지혜, 요가적 기법, 박피(bhakti·신에 대한 절대적 사랑) 등이 요가수행의 발전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동화현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라마누자의 요가사상은 전 시대의 사교체계를 한데로 묶어 회통승화(會通昇華)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성 교수(동국대)는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개념’에서 “우파니샤드나 유식불교의 언어 활용은 언어를 버리고서 선에 들어갈지라도 처음에는 교에 의지해야 한다는 한국선의 사교입선(捨教入禪)의 전통과 궤를 같이 한다”며 “초기 우파니샤드의 명상은 모두 교적(敎的) 명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판달리 요가의 불교적 수용(정태혁·동국대) △불교의 수기사상과 율전생관(안승준·동방불교대) 등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INTERNET 사이트 달마매트 (http://www.dharmathe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DMARMA, I WILL HAVE TO TEACH YOU TO BE MORE COMPASSIONATE.  
I WILL RESCUE YOUR VICTIMS AND GIVE YOU CAT FOOD INSTEAD, UNTIL YOU LEARN.  
COME ON, ONE MORE TIME!  
WELL, O.K. BUT YOU OWE ME ASBRIAND ACHEDDAR.

달마야, 네가 좀더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어.  
먼저 네가 돕고 있는 쥐를 구하고, 네가 자비심을 배울 때까지 먹이를 줄게.  
(달마는 시암에게) 우리 한번 더하자. (달마의 제안을 수락한 시암은) 좋아, 그런데 내게 체대치즈를 주어야 할거야.

해설: 어리석은 자는 일생 동안 지혜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무상의 변화하는 도리를 생각지 않은 채, 일신을 지탱할 재산 모으기에만 열중하면서 ‘이만하면 천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하니 딱한 일이다.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붉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제껏 지음●  
85 변형 195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 ▶ 수록된 법수 목록
- 일념(一念), 일단일제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장(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성제(四聖諦), 오계(五蓋), 오종(五種),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迴),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번(七辯), 칠불통계(七佛通稱), 팔난(八難), 팔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형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괘(廣),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祥),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

# 법수로 배우는 불교